

# 美 민주당 대선후보 해리스 추인... '트럼프 추대' 앞질렀다

### 전당대회 첫 날 2003만여명 TV 시청... 공화당보다 많아 바이든 대통령 이어 오바마 부부 "햇볕 넘겼다" 지지 호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막을 올린 전당대회는 나흘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나흘간의 일정 가운데 '국민을 위해'를 기치로 한 첫날 행사에서는 후보 자리에서 전격 사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사로 나서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자신의 뒤를 이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도 전당대회 이틀째에 참석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지지 연설과 함께 당의 결집을 호소했다.

◇해리스, 대선 후보 공식 추인=미국 민주당은 20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상징적인 대의원 호명 투표를 통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이달 초 온라인으로 진행된 화상 호명 투표를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실제로 참석한 가운데 다시 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미국 57개 주와 자치령의 대의원이 참가한 호명 투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을 지낸 델라웨어주에서 시작했으며,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의 출신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로 마무리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온라인 호명 투표에서 참가 대의원의 99%에 달하는 4600여명의 지지를 얻었고 이날 투표에서도 이변은 없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2일 전당대회 마지막 날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집권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美 민주 전대 첫날밤 2000만명 TV로 봤다... '트럼프 대관식' 앞질러=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TV로 지켜본 시청자 수가 공화당 전당대회 시청자 수를 웃돌았다고 CNN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밤 10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13개 방송사가 중계한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 행사의 총시청자 수는 200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한 지난 달 15일의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 행사의 시청자(1810만명)보다 약 200만명 많다.

이번 전당대회 시청자 수는 2020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의 1970만명도 웃돌았지만, 2600만명이 시청한 2016년 민주당 전대보다는 적다.

오후 11시 30분께 시작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본 시청자 수는 1910만명에 달했다.

채널별 시청자 수를 보면 MSNBC가 46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CNN 340만명, ABC 280만명, 폭스 뉴스 250만명, CBS 210만명, NBC 190만명 순이었다.

◇오바마 부부 "햇볕은 넘겨졌다"...해리스 지원 사격=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민주당의 이틀째 전당 대회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20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니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 행사에서 무대에 올라 포옹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차례로 한 연설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에 대한 전폭적 지원에 나섰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여전히 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막후 실세 커플이 힘을 실으며 민주당은 한층 단합하는 분위기다.

시카고가 낳은 정치인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향에 오니 좋다"며 지난 2008년 '오바마 열풍'을 상징하는 캠페인 구호 '불타오르고 있다(Fired up

)', '나아갈 준비(ready to go)'를 소환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제 햇볕은 넘겨졌다"며 해리스 부통령 당선을 위한 당의 결집을 촉구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미국을 위해 싸울 때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에너지에 쏟아 부어야 하는 싸움이며, 팽팽하게 양분

된 나라에서 벌어지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여기 78세의 끊임없이 불만을 멈추지 않는 백만장자가 있다. 그는 이제 카말라에게 질 두려움까지 가져 상황은 한층 악화하고 있다"며 "유치한 변명, 미친 음모론에 거짓말, 심지어 군중 규모에 대한 괴상한(weird) 집착까지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는 허세와 갈팡질팡, 혼돈을 4년 더 경험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영화를 이미 보았고, 보통 속편은 한층 심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은 이제 새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을 위해 준비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들은 '고마워 조'와 함께, 2008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인 '예스 위 캔'(Yes We Can)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오바마 전 대통령에 앞서 연단에 선 미셸 여사는 미국에 "희망이 돌아오고 있다"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자"(Do something)고 호소했다. 여전히 막강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셸 여사는 아마존 여전사를 연상시키는 강인한 차림으로 연단에 올라 해리스 부통령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편협한 관점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성공적인데 어쩌다 흑인인 사람들이 위협으로 다가온 것 같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흑인 언론인들과 대담에서 '흑인 일자리'를 언급한 사실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누가 그(트럼프)가 지극히 추구하는 일이 그 같은 '흑인 일자리'가 될 수 있냐고 말할 것인가"라며 관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끌어냈다. /연합뉴스

## 가자휴전 또 불발되나... 美 국무, 중동 순방 '빈손'

### "합의 며칠 내 이뤄져야... 이스라엘, 가자 장기점령 수용 안 해" "네타냐후, 합의 전망에 의구심...미 당국자, 휴전 협상 계속"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중동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가자지구 휴전이 또 한 번 물 건너가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휴전 합의 타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하나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타르를 차례로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블링컨 장관의 중동 방문은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번이 9번째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이번에도 휴전 합의 등 중동 평화를 위한 돌파구를 끌어내지 못한 채 20일 카타르 도하를 떠났다.

블링컨 장관은 "합의는 앞으로 며칠 내에 완료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결승선을 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은 중동에서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그 긴급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데 대해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 단계 최고위급 지휘관이 공습을 받아 숨진 것과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휴전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자지구 휴전은 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을 억제하거나 그 수위를 완화할 열쇠로 여겨진다.

하지만 휴전 합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마스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뉴스는 이날 전했다.

해당 중재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블링컨 장관은 카타르에서 중재안 내 이스라엘 철군 조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가자지구 장기 점령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해당 안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철수의 일정과 장소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뉴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전망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 합의와 관련해 '레드라인'을 그으면서 가자지구 평화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일 하마스에 살해되거나 납치된 이들의 친인척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라델피 통로와 넷자림 통로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합의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연합뉴스

## 고이즈미 전 총리 아들, 日 총리 도전

###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시사... 고바야시까지 40대 2명 입후보 예상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내달 27일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복수의 자민당 국회의원의 총재 선거 입후보 의사를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으며 내주 이후 출마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주변에 "얼굴(당)의 간판"을 바꾸면 좋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총재 선거는 당을 바꾸기 위한 진검승부로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1981년생으로 올해 43세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입후보 가능성이 거론되는 당내 의원 11명 중에 가장 나이가 적다.

앞서 49세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입후보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출마하면 이번 총재 선거에서는

세대교체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 40대 2명이 출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 개혁에 더해 세대교체도 쟁점이 될 듯하다"고 분석했다.

역대 자민당 총재 선거를 보면 2009년에 당시 모두 46세였던 고노 다로 의원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의원이 출마했으나, 다니가키 사다카즈 의원에 패했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입후보에 필요한 의원 추천인 20명을 이미 확보했고, 일각에서는 지원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40명을 넘는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는 2009년 중의원(하원)에 처음 입성할 5선 의원으로, 각료 경험은 2019년부터 2년간 환경상을 지낸 것이 유일하다.

주요 언론 차기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에 이어 꾸준히 2위에 오를 정도로 지명도가 높고 대중적 인기도 있는 편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